

2022학년도 제1차 한국예술종합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

1. 재정위원회 개요

- **일 시**: 2022. 04. 27.(수), 14:00~14:58 (※ 개회 14:06, 폐회 14:58)
- **장 소**: 석관동교사 본관 4층 총장부속회의실
- **출석위원**: 10명(재적위원 15명)
 - **당연직위원(4명 참석)**
 - 교학처장, 사무국장, 연극원장, 영상원장
 - ※ 불참위원: 기획처장, 음악원장, 미술원장
 - **일반직위원(6명 참석)**
 - 외부위원: 김용삼(위원장), 교원대표: 서정록, 박인수, 직원대표: 정동선, 김현철, 학생대표: 장세진
 - ※ 불참위원: 외부위원(권혁준), 학생대표(정수인)
- **기타 참석자**
 - 총무과장(간사), 예산담당사무관, 결산담당사무관, 예산담당주무관, 안세회계법인 공인회계사, 공무원직원(참관)
- **회의 안건**
 - **보고 안건**
 - 재정위원회 위원 임기 등 운영보고
 - **심의·의결 안건**
 - 2021학년도 대학회계 결산(안)
 - 2022학년도 대학회계 추가경정예산(안)
 - **기타 논의**
 - 본교 「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(안)
 - 회의록 대표 서명 위원 호선

2. 재정위원회 회의내용

□ 개 회

- (간사) 재정위원회 재적위원 15명 중 현재 10명이 참석하여 과반이 넘어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.
- (위원장) 개회를 선언 함. (의사봉) [개회시각: 14:06]

□ 안건 설명

- (간사) 회의에 상정된 안건 목록을 설명함.

□ 보고안건. 재정위원회 위원 임기 등 운영보고

- (유래민 예산담당사무관) 재정위원회 위원 임기만료 및 향후 구성방안을 설명함.
- (김용삼 위원장) 위원에게 의견을 물었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자 원안을 접수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들도 이에 동의함.

□ 심의안건 ①. 2021학년도 대학회계 결산(안)

- (조용대 결산담당사무관) 2021학년도 대학회계 예산 총 907억원의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함.
- (이익재 공인회계사) 2021학년도 대학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함.
- (김용삼 위원장) 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음.
- (김현철위원) 유형자산이 줄어드는 것이 국립대학교들 안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 건지 질문함.
- (이익재 공인회계사) 자산가치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음. 학교가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이 전년대비 226억 정도 줄었는데, 결국은 시가로 평가하겠다는 내용임. 그전에는 특정자산에 대해서만 평가, 5년마다 총괄청에서 5년치 모든 자산을 평가하다 보니까 가액이 많이 떨어져 있음. 재평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학교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고, 부정적인 부분은 결과치, 즉, 결과가 손실이 났기 때문에 학교의 자산가치가 떨어졌다는 인식을 할 수 있음.

- (김현철 위원) 학교를 평가하는 지표 중이 이런 항목들이 있는지 질문함.
- (윤재무 총무과장) 대학을 평가하는 항목에는 없을 것 같음.
- (이익재 공인회계사) 주로 토지 쪽은 평가액(가치)이 하락하는 경우가 드물고, 공장물, 기계들은 평가를 하는데 금액 적 비중이 낮으며, 금액 적 비중은 건물이 크고,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상승하지 하락하는 경우는 드물. 재평가 손실이 건물에서 나는 부분이 있고, 건물 같은 경우는 국세청/구청, 시청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매년 가치가 하락되게 구성되어 있음. 평가기준에 따라서 실제 취득가보다 가치가 하락하게 평가되어 있는데. 부동산의 실제 시가는 시장에서 정해진 가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.
- (박영국 사무국장) 감가상각이 많은 것이 부동산이고, 부동산을 구성하는 게 땅인데, 학교가 가지고 있는 땅이 별로 없음. 건물은 감가상각이 많이 들어가고, 땅은 실제로 땅값은 많이 오르는데, 그건 반영을 못 받은 것임을 덧붙여 설명함.
- (이익재 공인회계사) 토지는 순간적(전년대비) 토지구매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, 412억에서 574억으로 평가 이익이 증가, 평가기준이 공시지가이고 공시지가는 매년 증가하기 때문에 토지는 평가액이 늘어남, 건물 같은 경우는 (취득가액 기준으로) 1260억에서 567억으로 줄었음. 평가를 할 때는 감가상각 후에 평가 금액과 정부의 지침을 따른 평가금액의 차액을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 준 평가지침 평가금액과 장부가액이 차이가 많이 남을 설명함.
- (김용삼 위원장) 감사보고서에도 나왔지만, 자산평가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평가방법의 오차는 다른 대학도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기 바람.
- (김용삼 위원장) 더 이상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모든 위원의 동의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. (의사봉)

□ **심의안건 ②. 2022학년도 대학회계 추가경정예산(안)**

- (유래민 예산담당사무관) 2022학년도 대학회계 추가경정예산 34억에 대해서 설명함.
- (김용삼 위원장) 더 이상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모든 위원의 동의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함. (의사봉)

□ 기타논의. 한국예술종합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(안)

- (김현철 위원) 차기 재정위원 구성과 관련하여, 총학생회 부재로 일반직위원 학생대표 추천의 어려움과 일반직위원 직원대표를 추천하는 기구인 직원 협의회에 대학회계직 직원의 참여가 배제가 되어, 해당 개정(안)을 발의하게 됨을 설명함.
- (김용삼 위원장) 대학회계직 직원 1명을 배정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문함.
- (김현철 위원) 대학 구성원 단위(공무원, 공무직, 대학회계직)에서도 대학회계직이 숫자가 적어서, 재정위원으로 참여 및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려움. 꼭 재정위원회 위원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, 위원 추천에 대해 논의는 할 수는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개정(안)을 발의하게 되었음.
- (윤재무 총무과장) 기존 비공무원 노조 추천 3명에 대학회계직 노조가 포함 되어 있었고, 올해 초에 대학회계직 노조가 해산함에 따라, 대학회계직도 참여 할 수 있는 체계로 가고자 함을 덧붙여 설명함.
- (김현철 위원) 다른 국립대학에서는 직원협의회 추천이라고 간단히 명시 되어 있음. 이미 재정된 규정을 건드리기에는 설득의 근거가 부족해서 대학 회계직 직원의 참여 방안만 마련하고자 개정(안)을 발의하게 되었음.
- (김용삼 위원장) 학내의견수렴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함.
- (윤재무 총무과장) 논의한 결과를 가지고, 이후로 학내의견수렴을 통해 진행 하고자 함을 답변함.
- (김용삼 위원장) 위원들에게 추가 의견을 물어봄. 추가의견을 포함해서 서면 심의로 진행하는 것이 원활할 것 같다고 얘기함.
- (김현철 위원) 학생대표의 의견을 물음. 학회단에서 의논해서 추천하는 게 맞는지 검토 및 적절한지 물어봄.
- (장세진 위원) 6개원 학생대표(각 원 학회장 중 1명) 추천이 원 학생회 회장도 포함이 되는 문장인지 질문함.
- (김현철 위원) 그럼, 6개원 학회장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 물어봄.
- (장세진 위원) 6개원 학생회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 것이 원 학생회 안에 원 운영위원회가 있고, 각 학회장들이 포함되어 있음.

- (김현철 위원) 그럼, 6개원 학생회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물어.
- (윤재무 총무과장) 총학생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지만, 6개원 학생회는 항상 구성이 되어 있는 건지 물어.
- (장세진 위원) 지금은 모든 학생회가 없는 상황, 연극원 학생회만 보궐선거를 나와 있는 상태고, 다른 과 학생회들은 정식 선거를 하진 않지만, 학과 내에서 학생들의 투표를 받아서 학회장을 뽑는 것이 과 학생회임. 과 학생회는 다 있음.
- (김미희 연극원장) 6개원 학생회장들이 모여서 추천하는 건지 질문함.
- (이영희 교학처장) 지금 현재로는 6개원 학생회장이 아무도 없음. 지금 상황으로는 있는 원도 있을 수 있고, 없는 원도 있을 수 있어서, 학생회로 간다는 것은 학생회가 조직이 안 되는 원은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얘기함.
- (장세진 위원) 예술사 총학생회도 총학생회 산하에 원 학생회가 있기 때문에 원 학생회가 구성되어 있을 때를 전제로 하면 예술사 총학생회로 다 포함될 것 같고, 지금 6개원 학생대표 문장은 아예 총학생회가 조직이 안 되었을 때, 학회장을 기술했던 것이기 때문에 각원 학회장 중, 각원 학회장 포함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다고 말함.
- (이영희 교학처장) 학회장이 어떤 의미인지, 과대표를 의미하는 것인지 질문함.
- (김미희 연극원장) 과대표이 모여가지고 원대표가 되는지, 지금은 없는지 물어봄.
- (장세진 위원) 지금 현재는 각원 각과 학회장들이 모여서 원 학생회 비대위가 구성되어 있음.
- (박영국 사무국장) 올해만 쓰려고 만드는 규정이 아니고, 올해와 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것을 예견해서 만드는 건데, 6개원 학생대표라고 할 때 과 학회장은 있지만, 원 학회장은 있는지... 괄호에 있는 문구를 빼고 6개원 학생대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음. 해마다 상황이 달라지는데. 6개원 중 3개원은 학생회가 구성될 수 있고, 3개원은 구성 안 될 수 있을 때, 원장님과 상의해서 학생대표를 지정해서 보낸다던지, 그래서 그 6명이 모여서 추천을 하던지, 규정을 포괄적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음. 괄호 부분을 빼는 것이 어떤지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.

- (김용삼 위원장) 학생대표 추천 시, 총학생회가 구성이 안 될 수도 있어서 규정개정을 논의하게 되었는데, 원의 학생회도 구성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한다면, (지금 현재로 없는 상황임) 원 학생회가 없더라도 원의 학생대표는 어떤 형식으로든 뽑을 수 있으므로, 그 사람들이 모여서 추천 받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의견을 종합해서 설명함.
- (이영희 교학처장)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대표들은 있을 수 있음.
- (장세진 위원) 과대표는 학년마다 있는 것이 과대표고, 각 과마다 학회장이 항상 뽑힘.
- (이영희 교학처장) 학회장이라고 명명을 하는지, 예를 들어 OO원 OO과 학회장이라고 하는지 물어봄.
- (장세진 위원) 네. 그 과에서 학회장으로 뽑힌 학생은 발전기여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, 총학생회 회칙에서도 각 학회장이 각과 학생회 대표라고 명명되어 있다고 답변함.
- (박영국 사무국장) 학생대표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총학생회 회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, 학교규정은 포괄적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함.
- (김용삼 위원장) 이런 의견을 전부 포함 및 정리해서 나중에 서면심의로 진행하기로 위원들에게 동의를 구함. 더 이상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, 다음 기타논의를 진행함.

□ 기타논의. 회의록 서명 위원 호선

- (김용삼 위원장) 위원 논의에 따라 김미희 연극원장, 교원대표 박인수 위원, 학생대표 장세진 위원이 서명하는 것으로 정함.
(위원 전원이 동의)

□ 폐 회

- (김용삼 위원장) 차기 재정위원회 일정들을 간략히 알리고, 더 이상의 의견이 있는지 위원에게 묻고,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, 최종 폐회를 선언함. (의사봉)

[폐회시각: 14:58]

2022. 04. 27.

위 원	김	미	희	(인)
위 원	박	인	수	(인)
위 원	장	세	진	(인)